

농림부 오리위생도압지역 확대 움직임

농림부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축산물 가공처리법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10일 닭,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개정에 대한 의견을 당협회에 조회했다.

이에 따르면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 지역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에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근거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지역은 지난 90년 3월 12일 농림수산부고시 제90-10호에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고시에서 오리의 경우는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을 전라도 광주 및 목포지역을 적용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외의 지역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지역에서 벗어나 판매를 목적으로 오리를 잡아 유통하더라도 아무런제제를 받지 않았었다.

이번 농림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오리업계는 오리를 잡는 제대로된 작업장이 없는 상태여서 오리고기 소비위축과 함께 소규모로 자가도압하여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오리사육농가의 출하지연은 물론 오리고기 유통업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용오리가격 폭락속 새끼오리가격 강세

육용오리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새끼오리 가격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현재 육용오리 가격은 생체 Kg당 1,625원으로 전월대비 150원이 하락하는가하면 출하일령역시 53일령까지 늘어나 전월에 비해 4-5일 지연돼 출하되고 있다.

이같은 육용오리 가격은 지난 2/4분기 평균가격 2,382원에 비해 31%가 하락한 가격이고 출하일령은 2/4분기 평균 출하일령 35일에 비해 무려 18일이 지연된 수치이다.

이에반해 새끼오리 가격은 1,200원선으로 전월에 비해 변동이 없고 지난 2/4분기 평균가격 1,116원에 비해 오히려 83원이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육용오리 폭락속에 새끼오리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육용오리가격의 경우 추석연휴를 전후해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줄어든데다 경기악화에 의한 외식소비문화의 침체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반해 새끼오리 가격은 오리업계의 장기호황과 경기침체에 의한 실

직인구등이 비교적 사육이 손쉽다고 생각하는 오리사육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신규사육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반해 부화장들의 생산성은 떨어져 새끼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월 새끼생산량 크게 늘어난다.

부화장들의 생산성 저하에 의한 새끼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11월 새끼생산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육용오리 출하량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오리고기 소비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오리사육농가들의 농장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9월 오리사료생산량 통계 및 중부지역의 일부부화장들의 새끼생산 분석결과 드러났다.

9월 배합사료 생산량 집계결과 산란사료 생산량은 1천2백 6톤으로 7,8월에 비해 20% 증가됐다. 이는 종오리 13만3천8백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산란율 55%, 부화율 60% 계산시 10월의 새끼생산 예상량은 1백32만5천수로 전월에 비해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12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역시 11월에 비해 약20만수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중부지역에서 조사된 부화장들의 경우 10월에 초란을 생산하는 종오리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10월에 비해 부화장들의 새끼 생산능력이 크게 좋아 질 것으로 보여 11월 이후 새끼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리고기 소비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육용오리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사육농가들의 농장경영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촉진을 위해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협 배합사료 가격 또 인하

축협이 지난20일 배합사료 가격을 현재보다 4% 추가인하하여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축협의 이같은 배합사료 가격인하로 일반배합사료 업체의 경우 서울사료가 즉각적인 사료가격인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반업체의 경우도 조만간 배합사료 가격을 같은선에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새끼오리 가격 수당 2백원선 인하

오리고기 소비부진으로 육용오리 사육농가들의 오리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끼오리 가격이 수당2백원씩 하향조정돼 전월에 비해 약16%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1월 5일 현재 새끼오리 수당가격은 중부이북 1,100원, 중부이남 1,000원선, 영호남 1,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새끼오리 가격은 11월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육용오리 출하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새끼오리 가격은 조만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피단 3/4분기 62톤 수입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오리알 가공품인 피단(일명 송화단)의 3/4분기 수입량이 62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피단 수입량은 62톤으로 금액상으로는 7만8천불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입국은 전량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단 수입가격을 분석해보면 환율 1,350원시 피단톤당 수입가격은 1백69만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는 톤당 2백12만 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단개당 중량이 300g으로 계산하여 개당가격을 계산해보면 피단개당 수입가격은 514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기타가축에도 자금지원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자금이 기타가축에도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농림부 정책자금은 총 60억원에 개소당 최고 3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되며 기타가축이 포함되어 지원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위한 자금은 양돈분야에 국한돼 시행되었으며 기타가축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이 자금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현재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내년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초까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선정은 2월이후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가축 육성 지원자금 없어진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육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사육기반확충을 위해 소, 돼지, 닭, 기타가축등으로 구분해 지원되던 사육기반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하나로 통합편성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타가축육성을 위한 별도의 자금은 없어지는 대신 통합된 자금 지원규모내에서 해당시군의 사업신청 범위를 고려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

로 보이며 이는 경쟁력이 있는 축종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오리의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타가축사료 생산량중 오리의 비중 28.2%에 해당

올해 9월말까지 생산된 기타가축사료 전체 생산량중 오리사료의 비중이 2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가 집계한 9월말현재 기타가축사료 생산량에 따르면 기타가축사료 총 생산량은 27만6천5백80톤으로 오리사료는 7만8천68톤이 생산돼 기타가축 전체사료생산량의 28.2%를 차지 기타가축사료 생산량중 가장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오리사료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오리사료 생산량은 양계사료 생산량의 3%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사료생산량 1천45만6천8백56톤에 비해서는 0.7%를 차지했다.

축가법 적용대상지역 조정에 관한 의견제출

당협회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적용대상지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오리를 잡는 시설이 갖춰진이후에 시행해줄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에서 본회는 위생적인 오리고기의 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현재의 오리도축현실을 감안할 때 적용대상지역의 확대는 오리사육농가의 오리출하는 물론 유통업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오리고기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같은 오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리를 잡는 도축장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본회의 의견서 제출시 해당시군관계자와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11월중에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12월중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추실 온도감지 경보시스템

온도조절 실패에 따른 새끼오리 폐사에 의한 농장 경영손실을 최소화 하십시오. 육추실 온도감지 경보시스템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온도감지 경보시스템, 지금 본협회로 주문하십시오. 대당 가격은 10만원입니다.

구입문의 본회 사무실 0331) 225-1158